

별첨

# 서민들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「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」

2018. 1.

금융위원회

## 목 차

I . 그간의 정책 노력 및 평가 .....	1
1.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.....	1
2. 성과 및 평가 .....	2
II . 추진 계획 .....	3
1. 사잇돌 대출 및 민간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.....	4
2.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 지원 ..	6
3. 유관기관간 협력하여 소비자 안내 및 정보공유 강화 ....	8
III . 기대 효과 .....	10
IV . 추진 일정 .....	11

# I. 그간의 정책 노력 및 평가

## 1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

□ (배경) 구조적인 중금리 신용공급 부족으로 중신용자의 금융 애로 지속 →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

- (소비자) 금리구조 단절화로 중간 수준의 신용도·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 중 상당수가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

\* 신용대출 평균 금리('17.11) : 은행 5.1% ↔ 저축은행 25.4%, 캐피탈 21.6%

- (금융기관) 중신용자 신용평가 정보·노하우 부족으로 취급 주저

□ (현황) 중금리 대출 활성화의 마중물\*로서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(사잇돌)을 출시하고, 민간 자체적인 공급기반도 강화

\* 금융기관은 사잇돌 대출 취급으로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·노하우 습득

- (사잇돌) '16.7월 출시 후 금융기관·소비자 수요를 반영하여 취급기관·공급한도를 확대하면서 안정적 공급('18.1.19, 1.4조원)

\* [기관] '16.7 은행 → '16.9 저축은행 → '17.6 상호금융 / [한도] 1조 → 2.15조원

- (공급기반 강화)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강화\* 하고,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정보공유 확대 등 취급역량 제고

\* [저축은행]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규제 적용시 중금리 대출 실적 우대  
[은행] 금감원 서민금융평가시 중금리 대출 실적을 반영

-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하락 완화, 공시강화\* 등 소비자 편의 제고

\* '금융상품 한눈에' 사이트에 중금리 대출 상품의 신용등급별 금리 현황 안내

- (인터넷은행 출범, '17.4·7월) 중금리 대출의 공급 경로 확대

## 2 성과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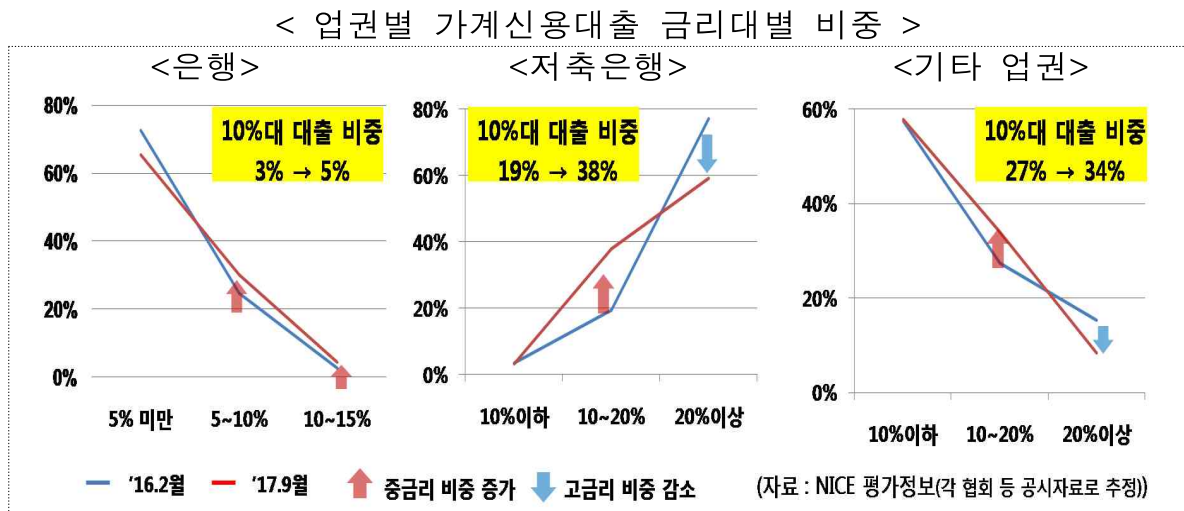
□ (성과) 사잇돌 대출이 민간 중금리 대출의 '축매'이자 건전한 경쟁자로서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

○ (사잇돌) '17년 약 10.6만명에 금리 6~18%수준의 신용대출 공급

○ (민간 중금리) 민간 자체 중금리 대출 공급도 年 2조원으로 확대

\* '17.1~3Q중 전년동기 6,259억원의 약 3.2배인 약 2.1조원 공급  
(평균금리 18% 이하이고, 4~10등급 차주에 70%이상 실행된 '상품' 기준)

○ (금리단층 완화)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금리 10%대 대출비중 증가



□ (평가) 보증연계 사잇돌 대출만으로는 활성화 한계 ⇒  
취급유인 제고로 민간 주도의 중금리 대출 대폭 확대 필요

○ 보증한도 등 감안시 사잇돌 대출만으로는 시장수요 충족에 한계

\* 중·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20~130조원 수준 ('17.9, NICE·KCB)

○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고,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가속화될 필요

\* 금융기관은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, 정보공유 관련 규제 개선 등 지속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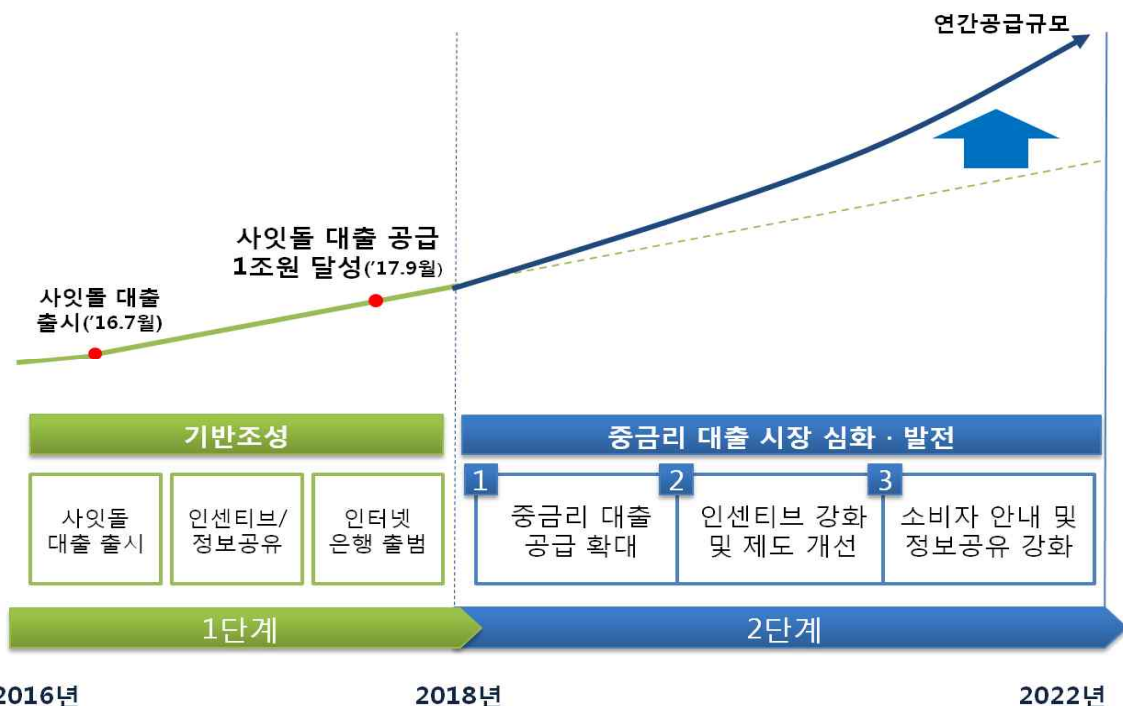
## II. 추진 계획

### < 추진 방향 >

- ① (공급 확대) 중금리 대출이 안착되도록 당분간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 지속 → 공급한도 1조원 증액 (2.15→3.15조원)
  - 동시에 주요 금융그룹,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선도적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토록 적극 장려
- ② (제도 개선)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확대하고, 정보공유·분석 관련 규제개선 추진
- ③ (유관기관간 협력) 서민금융진흥원, 보증보험 등 유관기관도 소비자 정보제공, 정보공유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

⇒ '22년까지 연간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7조원으로 2배 확대

\* ('17) 年 3.5조원(사잇돌 + 민간자체) → ('22) 年 7조원



# 1 사이트돌 대출 및 민간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

## 가. 사이트돌 대출 공급한도 확대 및 제도개선

- (공급한도) 사이트돌 대출 공급추이·시장수요\* 등을 감안하여 공급한도를 1조원 증액 (2.15조원 → 3.15조원, '18.上)

\* '18.7월, 現 공급한도 2.15조원 소진 예상

- 금리상승\*에 따른 중·저신용자의 부담 증가, 취급 금융기관의 자체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충분한 운용경험 축적 필요성 등 고려

\* COFIX 신규 : ('17.6) 1.48% → ('17.9) 1.52% → ('17.12) 1.79%

-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한도확대는 신중

- 업권별 한도\*는 업권별 공급 추이·의지를 살펴보며 구체화 ('18.上)

\* (現) [은행] 0.9조원 [저축은행] 1.05조원 [상호금융] 0.2조원

- (제도 개선)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공급

- 사이트돌 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그간의 실적·연체율 등을 검토하여 대출한도 확대, 보증료율 인하\* 등 추진

\* 사이트돌 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에 지급하며, 금융기관은 보증료율을 반영하여 대출금리 산정 → 보증료율 인하시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

- 우선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추진 (~18.3Q)

개선 대상·방향	현행	시기
대출 심사기준 ↓	보증보험 신용평가기준 등 (개인별 대출한도 등에 영향)	'18.上
대출 자격요건 ↓	[소득 800~2,000만원 이상, [근로기간] 5~6개월 이상 등	
보증료율 ↓	(평균) 은행 27%, 상호금융 28%, 저축은행 6.0% ('17.말)	'18.3Q
최대 대출한도 ↑	2,000만원 (일부 상품의 경우 300·1000만원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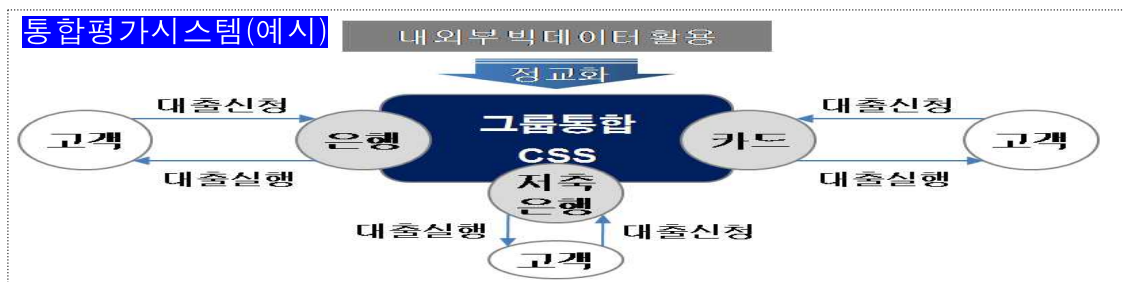
## 나.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→ '22년 年 7조원\* 공급

\* (5대 금융그룹) 2.4조원 + (인터넷은행) 3.1조원 + (여타 금융기관) 1.5조원

- ① (5대 금융그룹\*) 年 공급액을 0.9조원('17) → **2.4조원('22)**으로 확대 (2.5배 ↑)하고, 이를 위해 **계열사간 연계 강화 및 조직역량 집중**

\* 신한·KB·하나·NH·우리

- (계열사 연계) 계열사 정보(보험·카드 등)를 집적하여 정확성을 높인 **통합평가시스템**을 개발하고, 연계 영업·상품개발 확대



- (조직역량 집중) 중금리 대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, 담당 인력 증원·교육, 중금리 대출 실적의 KPI 반영 확대 추진

※ 이와 별도로 5대 금융그룹의 정책성 상품(사잇돌 대출, 햇살론 등)의 공급도 年 3.2조원('17) → 年 **4.6조원('22)**으로 지속 확대

- ② (인터넷은행) 年 공급액을 0.9조원('17) → **3.1조원('22)**으로 확대 (3.5배 ↑)하고, 이를 위해 **주주사와 협력 및 IT인프라 적극 활용**

- 유통·통신 주주사 정보, 앱 정보 등을 **결합(빅데이터)**하여 금융 정보가 부족한 고객에도 중금리 대출 제공 목표

금융·신용정보	주주사·IT 정보(예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CB사) 신용등급, 연체, 대출액</li> <li>▪ (인터넷은행) 고객의 소득·직종·연령·성별, 대출액, 상환액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유통) 소비성향, 패턴</li> <li>▪ (통신) 통신요금 납부 실적</li> <li>▪ (IT) 택시앱 등 정보</li> </ul>

- ③ (저축은행·캐피탈 등 여타 금융기관) 現 추세 고려시 年 공급액이 '22년 **약 1.5조원 이상**으로 확대 예상 ('17.1~3Q 약 0.9조원)

## 2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 지원

### 가. 인센티브 확대

- 저축은행에 도입된 규제상 인센티브를 서민이 주요 고객인 여전·신협업권으로 확대하고,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경쟁 유도

- (규제 인센티브) 여전사 본업(할부·리스 등)대비 대출 규제와 신협 비조합원 대출 규제 적용시 우대 (여전·신협법 시행령 개정, '18.下)

구분	업권	규제내용 및 인센티브
현행	저축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규제) 영업구역내 개인·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(30~50%) 이상으로 유지</li> <li>■ (인센티브)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%로 인정 → 중금리 대출 취급이 규제 준수에 유리</li> </ul>
확대	여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규제)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%이하로 유지</li> <li>■ (인센티브 예시) 중금리 대출은 80%로 축소 반영 * 예) [(중금리) 30 + (일반대출) 5] / (본업) 100 → (중금리 24로 반영) → 29%</li> </ul>
	신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규제)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·어음할인이 전체 신규대출·어음할인의 1/3 초과 불가</li> <li>■ (인센티브 예시)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%로 확대 인정 * 예) (비조합원) 40 / [(조합원 중금리) 50 + (여타) 50] → (중금리 75로 반영) → 32%</li> </ul>

- (공시 강화) 현재 은행·저축은행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금리 대출 상품 및 신용등급별 금리(평균·최고·최저)를 공시 중

⇒ 금융기관·소비자가 중금리대출 공급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공시 항목에 상품별 취급실적 추가 ('18.下~)

- (포상) 중금리 대출 우수기관 포상을 신설하여 매년 수여 ('18.下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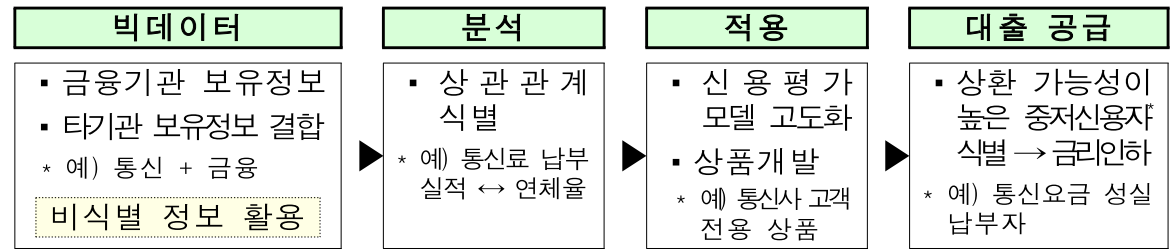
\* 금융위원장 표창 3점 내외



## 나. 개인신용평가·상품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·이용 지원

- 빅데이터 분석·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 제도를 정비하고,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확충

[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금리 대출 공급(예시)]



- (제도 정비) 비식별 정보\*의 분석·이용,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('18.下)

\*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 → 관련 근거 명확화

- (인프라 확충) 신용정보원·금융보안원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을 통해 빅데이터 DB·분석시스템 등을 금융기관에 제공 ('18.上~)

※ '18.2월중 「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」을 통해 구체화

## 다. 금융지주내 정보공유

- 신용평가모델 개발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\*으로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시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화

\*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, 고객분석과 상품·서비스의 개발 등

- 계열사간 고객 정보공유를 통해 빅데이터를 구성\* 가능하나, 금융기관 내부 사전승인\*\*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

\* 예) 건강정보(보험) + 소비패턴(카드) + 금융정보

\*\* 일반적으로 정보제공 건별로 금융기관내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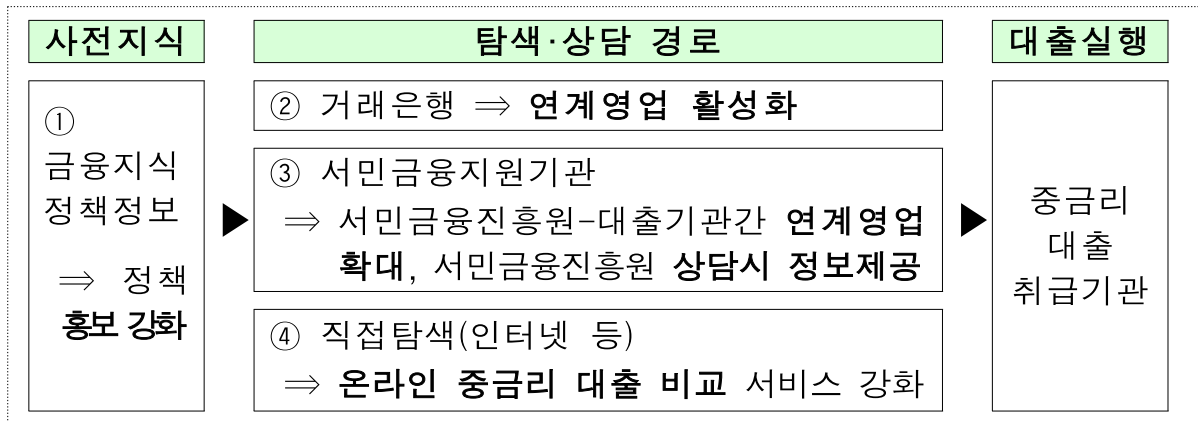
⇒ 필요한 규제(고객정보 암호화 등)는 유지하되,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\*하여 정보활용 용이성 제고 (금융지주 감독규정 개정, '18.下)

\* 예) 상품·서비스 개발 목적 등의 정보공유시 사전승인의무 면제 등

### 3 유관기관간 협력하여 소비자 안내 및 정보공유 강화

#### 가.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

□ 중금리 대출 수요자의 대출 탐색·상담 경로별 정보제공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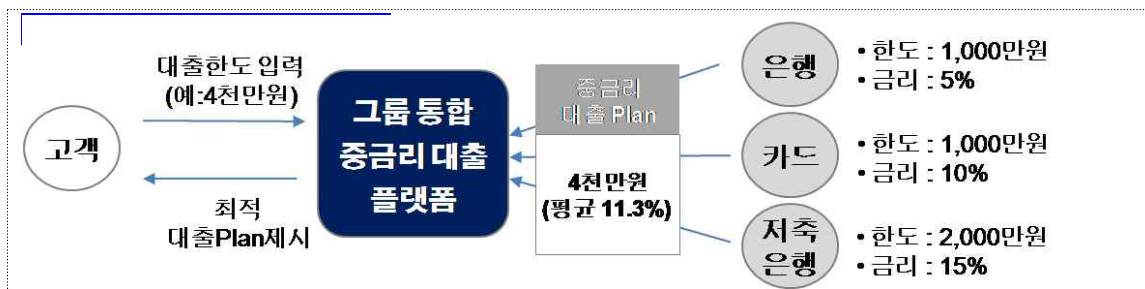


① (홍보 강화)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광고매체, 은행지점·마트 등 경제·생활공간에서 중금리 대출 홍보물 노출 확대

- 홍보물에 중금리 대출 공시 사이트(‘금융상품 한눈에’), 상담 안내 전화 등 정보제공 접점을 표시

② (금융그룹내 연계영업 활성화) 일부 금융그룹의 경우 계열사간 연계한 One-stop 중금리 대출 플랫폼\* 마련을 추진 중

\* 지점 또는 홈페이지 한 번 방문으로 계열사 대출상품을 종합한 대출안 제시



- 이와 같은 우수사례를 금융당국·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(후술) 등을 통해 공유하여 타 금융그룹으로 확산

- 은행-저축은행간 연계영업도 지속 확대되도록 독려

\* 현재 7개 은행, 2개 지방은행, 57개 저축은행 참여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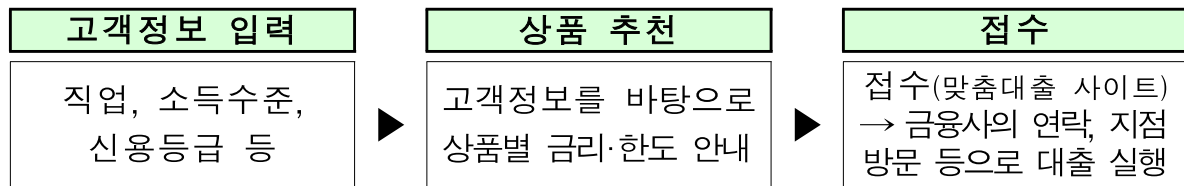
- ③ (서민금융진흥원 연계) 소득수준 등이 높아 서민금융상품을 이용 못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방문고객에 중금리 대출 소개·접수

\* 同업무를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창구 확대 : ('17) 4개 → ('18) 16개

- ④ (대출비교 서비스 강화) 대출상품 비교·추천 사이트·앱인 '맞춤대출'\*(서민금융진흥원 운영)상 안내되는 금융상품을 확대

\*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(54개)의 중금리 대출, 사잇돌 대출 등 114개 상품 안내 중 → '18년 140개로 확대 목표

< 참고 : '맞춤 대출' 서비스 프로세스 >



## 나.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확대

- ☐ 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정보를 확대 하고, 금융당국·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활성화 협의체 출범

- (서울보증보험) 사잇돌 취급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\*를 중금리 대출 취급기관에 공유(잠정 '18.下) ⇒ 신용평가모델 고도화에 활용

\* 신용등급, 연체일수·금액, 소득수준, 근속년수 등 (비식별화하여 제공)

- (공공·상거래 정보) CB사 신용등급 산정시 공공요금, 상거래의 성실납부실적, 장기실적 등 긍정적 정보의 활용 확대 ('18.上~)

\* 예) 긍정적 정보의 반영비중 확대, 기존에 미반영하였던 긍정적 상거래 정보 반영 등

⇒ 중신용자가 다수인 금융정보부족자(thin filer)의 신용평가 정밀화

※ 同내용을 포함, '공정한 개인신용평가를 통한 책임있는 여신관행 정착'을 위한 「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」 발표 ('18.1월)

- (협의체) 금융당국, 업권별 협회, 서민금융진흥원, 신정원 등이 참여하는 「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」(가칭)를 구성 ('18.上)

- 정기(반기1회)·수시로 제도개선 및 기관간 협력사항 발굴·추진

### Ⅲ. 기대 효과

- ◆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①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, ②금융기관 경쟁력 강화 및 ③금융시스템 안정화도 기대

- ① (금융소비자) 중금리 대출의 年 공급규모가 7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年 70만명(전수 기준)의 연간 금리부담이 약 3,500억원\* 완화

\* 7조원 x 5%p('17.9월 기준 저축은행업권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와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평균금리의 차[6.5%p]를 보수적으로 반영)

- 중금리 대출 정보 안내 강화, One-stop 대출 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탐색·실행 과정도 보다 편리해질 전망

<예시> 청년 창업자인 A씨(금융거래 정보 부족으로 신용등급 5등급)는 긴급 경영자금으로 2,000만원의 신용대출 필요 (1년후 만기일시상환)

현행(예시)	개선(예시)	
	주거래은행 이용시	진흥원 이용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거래 은행 방문 →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대출 미실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거래 은행 방문 → 계열사 연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시 및 대출 실행</li> <li>· 저축은행 1,200만원 금리 13%</li> <li>· 캐피탈사 800만원, 금리 11%</li> <li>☞ 카드사용 패턴 등 반영 금리 인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서민금융진흥원 방문 또는 유선상담 → 상품 비교·실행</li> <li>· 캐피탈사 2,000만원 금리 12%</li> <li>☞ 통신요금 성실납부 실적 등 반영 금리 인하</li> <li>* '맞춤대출' 이용시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대출 실행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저축은행 → 한도 1,500만원, 금리 21% 실행</li> </ul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카드로 잔여 소액(500만원) 대출, 금리 19%</li> </ul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총 금리 부담 410만원</li> <li>※ 3일 소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총 금리 부담 244만원 ⇒ 166만원 절감</li> <li>※ 1일 소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총 금리 부담 240만원 ⇒ 170만원 절감</li> <li>※ 1일 소요</li> </ul>

\* 금리 수준은 사잇돌 대출 사례 등을 참고

- ② (금융기관) 차주에 대한 선별역량 강화로 금리 경쟁력과 자산 건전성이 향상되고, 시장 확대에 의한 이익 증가 가능
- ③ (금융시스템) 시장 전반의 금리수준을 낮추어 금리 상승기의 완충 역할을 하고, 차주의 미상환 리스크를 완화

## Ⅳ. 추진 일정

과제내용	기관	추진계획
<b>1. 사잇돌 대출 및 민간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</b>		
<b>가.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 확대 및 제도 개선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급한도 확대</li> <li>- 제도 개선</li> </ul>	보증보험 보증보험	▶ '18.上 완료 ▶ '18.3Q 완료
<b>나.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대 금융그룹 / 인터넷은행 / 여타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</li> </ul>	금융기관	▶ 지속 추진
<b>2.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 개선</b>		
<b>가. 인센티브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전·상호금융 인센티브 도입(여전·신협법 시행령 개정)</li> <li>- 공시강화</li> <li>- 중금리 대출 우수 금융기관 포상</li> </ul>	금융위 협회 등 금융위	▶ '18.下 완료 ▶ '18.下 완료 ▶ '18.下부터 매년 시행
<b>나. 빅데이터 분석 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용정보법 개정</li> <li>- 신용정보집중 기관을 통한 인프라 확충</li> <li>- 「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」 마련</li> </ul>	금융위 신정원 등 금융위	▶ '18.下 개정안 발의 ▶ '18.上부터 순차 시행 ▶ '18.2월
<b>다. 금융지주내 정보공유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보공유절차 간소화 (금융지주 감독규정 개정)</li> </ul>	금융위	▶ '18.下 개정완료
<b>3. 소비자 안내 및 정보공유</b>		
<b>가.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강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소비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홍보 강화</li> <li>- 금융그룹내 연계영업 활성화</li> <li>-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창구 확대</li> <li>- 맞춤대출 제휴 상품 확대</li> </ul>	진흥원 금융기관 진흥원 진흥원	▶ '18.上부터 순차 시행 ▶ '18.下부터 일부 도입 ▶ '18.上부터 순차 시행 ▶ '18.上부터 순차 시행
<b>나.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보증보험 정보 공유</li> <li>- 공공·상거래 정보 활용 확대</li> <li>- 「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」 출범</li> </ul>	보증보험 CB사 등 금융위 등	▶ '18.下 (잠정) ▶ '18.上부터 순차 시행 ▶ '18.上 출범